

<2014.09.30.~2014.10.01.>

全北日報

2014년 10월 01일 (수)

지역 12면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발족됐다. 올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과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10 X 65 mm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105 X 109 mm



고창군 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고창=김동희 기자

75 X 113 mm

전북매일신문

2014년 10월 01일 (수)

지역 10면

고창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고창=박용관 기자

68 X 87 mm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청정도시 만들기 '앞장'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임무 다짐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한편,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 지회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 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사람-자연이 공존하는 사회 건설

사단법인 고창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격려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

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 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157 X 77 mm

새만금일보

2014년 10월 01일 (수)

지역 08면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 창립총회

청정한 환경·건강한 생활 목표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가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격려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신약희기자/syhee5311@hanmail.net

56 X 158 mm

전주매일

2014년 10월 01일 (수)

지역 11면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별로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전개해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과수꾼으로의 임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창=김영식 기자

70 X 85 mm

전라매일

2014년 10월 01일 (수)

지역 09면

단신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

군청 회의실서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격려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중요한 시점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전개해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과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현 기자

59 X 190 mm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만들어 나가자”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지역 대표 환경파수꾼 임무 추진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 군수는 격려사에서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 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태완 기자

고창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 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75 X 89 mm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 창립총회 개최

“환경보전 활동 통해 깨끗한 명품도시 만들 것”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화시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 1월 발대식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월 법인등록을 마쳤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

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격려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회별로 환경정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군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과수꾼으로서 임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종욱 기자



전국 > 전북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창립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09.30 16:00:30 송고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이하 협의회)는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고창군 © News1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이하 협의회)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스스로 지키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자연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자원을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립됐다.

이상복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1C는 청정한 환경, 건강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격려사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명, 감사 2명, 당연직 이사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읍면지 회별로 환경정화와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